

전남 역대 연소득 2510어가... 해조류 양식, 전복 제쳤다

물김 높은 가격·수출 호조 영향...고소득, 완도·고흥·진도·해남 순 5000만원 이상 3529어가...운영난에 패류 양식 113곳·어류 37곳 감소

김, 미역 등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조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어가가 지난해 2510어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김 작황이 좋고,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 소득 증진으로 이어졌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조류양식업과 어선어업 호조로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 어가가 3529곳으로 전년보다 181곳(5.4%) 늘었고, 1억 이상 어가도 2510곳으로 0.4%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3년 기준 고소득 어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구간별로 연소득 1억 이상 2억 미만 어가는 1349곳(53.8%)으로 가장 많았다. 또 2억 이상 5억 미만 어가는 861곳(34.3%), 5억 이상 어가는 300곳(11.9%)으로 나타났다. 전남 전체 1만5816곳 중 15.9%가 연소득 1억 이상 고소득 어가에 해당된다.

사군별로는 완도가 633곳(2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흥 415곳(16.5%), 진도 376곳(14.9%), 해남 296곳(11.7%), 신안 294곳(11.7%), 영광 249곳(9.9%) 순이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해남과 신안은 물김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보다 각각 18곳, 12곳이 늘었다. 반면 감소폭이 가장 큰 완도와 영광은 전복 산지가격 하락, 굴비 판매량 감소로 각각 36곳, 34곳 줄었다.

업종별로는 해조류 양식어가가 668곳

(2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패류양식업 608곳(24.2%), 가공·유통업 474곳(18.8%), 어선어업 280곳(11.1%), 어류양식업 256곳(10.1%), 전일업 97곳(3.8%)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보다 해조류양식업과 어선어업은 각각 46곳, 43곳 증가한 반면, 패류양식업과 어류양식업은 113곳, 37곳 줄었다. 특히 어류양식업은 육상 수조식 양식의 인건비와 전기료 상승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819곳(32.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33곳(29.2%), 40대 441곳(17.7%), 70대 320곳(12.7%), 30대 170곳(6.7%), 20대 27곳(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분포가 젊은 층 비율이 낮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기세, 유류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어업 환경 속에서도 어업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소득 어가는 2년 연속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 수산식품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해 어업인 소득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4년 132개 사업에 2581억원을 들여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자동화 시설 확충,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 등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도 김 양식 생산액 증가와 수출 확대로 고소득 어가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협중앙회를 전남으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전남도 해양수산 주요정책 현안 참여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안군수협에서 열린 ‘전남수산업협동조합장 소통 간담회’에서 조합장들과 수협중앙회 전남유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 미 공군기지에 농수산식품관 운영

전남도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공군기지 한국 소비자 전용 매장인 ‘숍 코리아(SHOP KOREA)’에서 전남 농수산식품 판매 식품관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군기지의 육·공군복지서비스(AAFES) 건물 1층에 개설된숍 코리아에서 별도 식품관을 마련, 오징어튀김스낵, 유기농 유자주스, 김스낵, 화장품 등 4개 업체 10개

품목을 오는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선보인다. 육·공군복지서비스 건물은 미군과 군 관계자, 그 가족이 이용가능한 종합몰이다. 현재 스타벅스, 푸드코트 등 1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미군기지 내 매장 허가과정, 판매 승인, 인력 운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기업당 참가비 전액인 10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참여기업 제품의 수출 실적이 발생하도록

상품 홍보와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이번 입점을 계기로 미국 내 대형 유통망 진입이나 공공조달 사업 참여를 위한 이력을 쌓고, 소비자 선호도와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미군 부대에 정식 군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숍 코리아 참여 기업이 미군·오프라인 유통망 등에 전남산 농수산식품과 소비재를 입점시키는 기회를 얻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대·동신대연합 ‘글로벌대30’ 지정 총력

최종 관문 대면평가 심사서 좋은 평가...다음달 최종 10곳 발표

20일 진행된 2024년 글로벌대30 공모의 마지막 단계인 본지정 대면평가 심사에서 국립목포대, 동신대연합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날 명확한 행정부지사가 심사에 참석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순천대 글로벌대30 지정 쾌거에 이어 더 치열해진 올해 지정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 발표 전부터 대학 대상 설명회 개최, 예비신청을 위한 혁신기획서 작성 지원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 결과 지난 4월 국립목포대와 동신대연합, 2개 지역대학의 예비지정을 이끌어냈다. 이어 모든 삼국 및 출연기관과 함께 글로벌대30 전담 지원 조직인 ‘대학협력TF’를 본격 가동해 대학 역할을 보장할 연계사업을 발굴하며 집중 지원했다. 이 가운데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문가를 중심으로 짜인 실행계획서 작성반은 지역 주력산업과 대학 특화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국립목포대, 동신대와 함께 지역·대학·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글로벌대30 발대식을 공동 개최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지역 대학 육성 의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치러진 현장 대면평가 심사에서 대학별 비전과 지자체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인구 감소 및 청년 유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정주형 청년을 키울 글로벌대30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순천대 글로벌대30 지정에 온 힘을 쏟아 선정 결실을 맺었다. 이후에도 지자체 최초로 ‘지산학 협력실’을 대학에 설치,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적극 지원해 글로벌대30을 신속하게 정착시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운영 과정에서 나온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대30 추진에도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글로벌대30 공모에는 20곳의 예비지정 지역 대학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교육부는 8월 대면평가를 거쳐 9월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전남 학교 밖 청소년 입시 박람회

28일 조선대 해오름관...17개 대학·장학재단 등 역대 최대 규모

광주시가 광주·전남지역 17개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박람회를 연다.

광주시는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교육청과 오는 28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대학 입시 박람회와 함께 검정고사로 대학 가는 방법 특강, 맞춤형 1대1 입시 상담 등이 진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입시 박람회는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기독교대, 남부

대, 동강대, 보건대, 서영대, 송원대, 전남대, 조선간호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한국폴리텍대학(광주), 호남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순천대 등이 참여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입시설명회 사전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누리집(www.flyyouth.or.kr-알려요)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료집이 배포된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올해 건축상 수상작 선정

다음달 3~14일 시청서 전시

광주시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가 선정한 올해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이 다음달 3~14일 시청사에 전시된다.

광주시는 “2024년 제28회 광주시건축상” 최우수작 비주거 부문에 남구 진월동 ‘보이저 진월’과 주거 부문에 동구 운림동 ‘낮은 공방과 높은 주방의 집’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상은 ▲공공 부문 ‘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비주거 부문 ‘카페 루브시’ ▲주거 부문 ‘일곡하안집’, ‘장덕동 1231’이 각각 받게 됐다.

광주시 건축상 선정 작품 건물에는 동판이 부착되며 건축설계를 한 건축사에게는 광주시장상과 상금, 시공자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작품은 오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청에서 열리는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된다. 건축단체연합회 누리집(www.gfauc.gjifika.org)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연이 숨쉬는 보성 천년의 유산을 담다

제12회 “보성세계차박람회”와 함께하는

국가중요 농어업 유산축제

2024. 9. 6. 금 — 9. 8. 일

한국차문화공원, 장양어촌체험마을 일원

보성 차(茶)와 뽕배어업을 활용한 전시, 문화체험, 뽕배대회, 세계차 품평·경연, 콘서트, 학술대회, 판매행사 등

농업유산, 제1호 보성 전통차 농업

어업유산, 제2호 보성 뽕배 어업

주 최 / 주 관 보성군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추진위원회 후 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